

## ‘낭만 선교’ 탐색

- 진실로

회의 장소에서 발표자료를 준비하면서, 이 시대에 대한 선교 이야기를 어떤 키워드로 구성해야 할까를 한참 고민했다. 그러던 와중에 한석규씨가 출연했던 “낭만닥터 김사부”를 보면서 영감을 받고 “낭만선교”라는 것에 대한 키워드를 가지고 “낭만”에 대해서 탐닉하기 시작했다.

낭만닥터 김사부에 나온 중요한 대사들을 중심으로 낭만을 꿈꾸는 자들의 선교가 어떤 모습일까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었고 많은 이들에게 공감을 얻었다. 낭만에 관한 다양한 자료를 수집하던 와중 최백호씨의 “낭만에 대하여”가 연관검색어로 뜨기 시작했고, 그의 노래를 듣고 다큐를 보면서 최백호씨의 노래에 푹 잠겨 버렸다. 그전에는 한 번도 들어 보려고도 시도하지 않았던 그의 노래들 중 숨겨진 노래가 가지고 있는 임팩트에 놀랐다.

세상적으로 가장 많이 알려진 노래가 “낭만에 대하여”이지만, 그의 노래 중에 “부산에 가면”이라는 노래는 듣는 순간 그 쓸쓸함과 슬픔에 눈물이 났다. 첫마디 “부산에 가면”이라는 첫 소절에 노래 전체의 분위기와 느낌을 알게 한다. 첫 한마디에 모든 것을 담아내는 그의 노래는 기교도 스킬도 없이 인생 그 자체가 가지고 있는 무게로 다가온다.

18 세기 루이 다게르가 최초의 사진술을 개발하고 나서 많은 미술가들은 충격에 휩싸였다고 한다. 그전까지 미술을 그리는 사람들의 최종 목적은 어떻게 하면 자연과 가장 가깝게 그려낼 수 있는 스킬 연마에 있었다. 그런데 사진술의 개발 이후 사진은 어떤 그림보다 더 정확하게 표현할 수 있었기 때문에 미술가들은 고민에 고민을 더했다.

그래서, 화가들은 전통적인 방식(즉 실제와 똑같이 그리는 방식)을 거부하고 사진이 표현하지 못하는 이미지를 찾기 시작했다고 한다. 그 처절한 고민의 결과가 추상화의 시작이라고 한다. 미술가의 색채, 구성, 배합만으로 화가의 의도를 전달할 수 있다는 생각 속에 물감 자체만으로 풍경을 표현하는 실험을 한 것이다. 즉 색과 구성만으로 대상을 상상하게 하는 그림의 탄생은 사진술의 도래와 함께 새롭게 나온 것이다.

앞으로의 선교를 바라봄에 있어 얼마나 더 정확하게 복음을 설명하고, 예수를 더 정확하게 그려내서 사람들에게 보여줄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는 방향성이 있다. 그렇기에 더 좋은 자질을 갖춘 후보생들과 강도높은 훈련과 지속적인 공부 등등 예전보다 더 엄격한 잣대를

가지고 접근하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문득 위에서 미술사에 있어서 추상화와 더불어 현대미술의 발달사를 보면서 배울 수 있는 인사이트는, 색채 구성 배합만으로도 말하고자 하는 의도를 전달할 수 있는 새로운 형태의 선교의 출현이 무르익고 있다고 생각이 들었다. 무엇보다 최재호씨의 “부산에 가면”이라는 노래에서 나타내듯이 높은 성량과 기교가 아닌 한마디가 담아 내는 말씀의 무게를 구현할 수 있어야 겠다는 생각이 들었다.